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마태오 제 11 주일

성 모세 에디오피아의 수도자

(제2조 • 조과 부활 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2조 부활 찬양송 81

수도자 찬양송 85

성당 찬양송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186

사도경 : 1고린토 9,2~12 (봉독서211)

복음경 : 마태오 18,23~35 ... 115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금식의 미덕

일부 그리스도인은 더 높은 수준의 영적 문제에만 관심을 보이고 금식은 필요하지 않다며 잘못 이해하고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40일 동안 엄격한 금식을 지키셨습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 신자들도 금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금식의 날과 기간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금식으로 얻는 놀라운 사례들이 수없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식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높은 영적 상태에 도달하려는 우리 목적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귀중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한 순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얻고 신화(神化)에 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키가 큰 측백나무 옆에는 항상 덩불이 있습니다. 사자 옆에는 토끼가, 강한 사람 옆에는 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 옆에는 환자가 있습니다. 부자 옆에는 가난한 자가, 배부른 자 옆에는 배고픈 자가, 부지런한 자 옆에는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자가 토끼를 삼키는 것입니다. 즉,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는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정글로 변합니다. 영리한 자는 생각이 약한 자를 조롱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할 것입니다. 본능은 사람을 바로 이러한 길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연약한 형제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의 겸손에까지 도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총에 의해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두 번째 방법은 강자와 약자를 평준화하는 것입니다. 즉, 덩불이 키를 맞출 수 있도록, 키가 큰 측백나무를 자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이 길은 유토피

아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강자가 약자 위에 들어서는 첫 번째 방법이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으로 이어진다면, 모든 것을 평평하게 하는 두 번째 길은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몇몇 '구원자'가 압제를 행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자유주의적 정권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로마 15,1)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을 굽혀서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면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2고린토 8,14 참조) 주라는 사도 바울로의 말을 눈여겨봅시다. 당신은 영적, 도덕적, 물질적으로 넉넉합니까? 당신에게도 이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것들은 “모든 완전한 선물”(야고보 1,17)을 주시는 분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혼자서만 이기적으로 간직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로서 남과 같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자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는 피라미드에 아주 가까이 가본 사람을 신뢰하든지 또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제3의 선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는 하느님 아주 가까이에서 서본 사람을 신뢰하거나 또는 자신이 그런 근접한 경험을 하기까지 고통을 견디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 성 니콜라이 세르비아의 주교, 신학자

한번도 꿀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꿀의 달콤함과 감미로움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신 하느님의 선하심을 깊이 통찰할 수 없다면, 가르치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전달될 수 없습니다.

- 성 대 바실리오스 케사리아의 대주교



만은 부자와 권력자들은 주님이나 정결하신 성모님을 보기 위해 기꺼이 많은 돈과 희생을 치르려 할 것이지만, 하느님은 부와 권력 속에 나타나시지 않고 겸손한 마음속에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가난한 이들은 겸손해질 수 있으며, 따라서 하느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돈이나 명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겸손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느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과학에 의해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하느님은 존재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하느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느님은 존재하신다고 믿는 것과 하느님을 아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성령에 의해서 하느님을 알게 된다면, 그의 영혼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밤낮없이 불타오를 것이며, 이 지상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 성 실루아노스 아토스 성산의 수도자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8월 30일 축일을 맞이하는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양 떼를 올바르게 잘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8월 29일(월)
세례 요한 참수 기념일
(엄격한 금식)
- * 8월 30일(화)
알렉산드로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 * 9월 1일(목)
교회 년도 시작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표지 사진 설명



시온산

예루살렘 남서쪽의 해발 765m의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성벽의 8개 문 중 남서쪽에 있는 ‘시온의 문’을 지나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구약성서에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예루살렘이나 성지 자체를 일컫기도 한다. 현재의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포함된 것은 기원전 2세기였다.

시온산에는 최후의 만찬 장소, 베드로 회개 기념 교회, 다윗 왕의 무덤 등 유적이 있으며, 성모님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안식한 곳으로 전해온다.

소식

■ 교회 년도 시작

9월 1일은 정교회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날은 콘스탄티노플 세계총대주교청에서 총대주교와 공의회 주교들이 모여 성찬예배를 드립니다. 이어서 특별한 예식을 통해 새 교회 연도의 축복된 시작을 기원하며, 비잔틴 시대부터 이어오는 전통에 따라, 총대주교를 비롯한 모든 참석 주교들이 특별한 책자본(codex)에 서명을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교회 년도를 맞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매년 9월 1일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이는 1989년에 당시 디미트리오스 세계총대주교가 제정한 것으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9월 1일에도 세계총대주교청에서는 성찬예배 후에 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도식을 거행합니다.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들도 정교회의 이러한 결정과 노력에 영감을 받아, 이 같은 기도 전통을 채택하여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

양구 수도원 부지에 대한 경계 측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울타리 설치와 현재의 진입로를 폐쇄하고 새 진입로를 내는 것입니다. 진입로 공사에 2,5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하느님,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과 살고 싶을 뿐입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스